메트로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전기요금 14일부터 4% 인상

NEWS p/02

금융권 콜센터 성희롱땐 처벌

NEWS p/03

ENTERTAINMENT p/16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에 어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잘려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에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 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불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예쁜 발=작은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렵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증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나.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 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담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박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증,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사용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Entertainment p/12

제시카 알바 다시 섹시컴백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제2646호 www.metroseoul.co.kr

Travel p/18

리조트 가면 선물 쏟아진다

이 두 입술에 꽂힌 '분홍 여심'

MBC 드라마 '보고싶다'의 윤은혜

SBS '청담동 앨리스'의 소이현

촌티 화장의 대명사 '핫핑크 립스틱' 인기몰이 불황극복 의지에 드라마 효과까지 겹쳐 대박

평소 짙은 화장을 잘 하지 않는 직장인 김니진(27)씨는 요즘 화장품 파우치 속에 분홍 립스틱을 꼭 챙겨 다닌다. 최근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 남성이 "귀엽고 여성스러워 보인다"고 칭찬한 이후부터다. 김씨는 "드라마 여주인공들이 맨얼굴에 핑크색 립스틱만 바르고 나온 모습이 예뻐보여 따라하기 시작했다"면서 "밝은 분홍색은 마냥 촌스러울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세련돼 보여 업무 미팅 때도 즐겨 바른다"고 말했다.

'촌티 화장'의 대명사였던 분홍 립스틱이 새해 여심(女心)을 설레게 하고 있다.

MBC 드라마 '보고싶다'의 윤은혜,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의 소이현처럼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술만 분홍색으로 강조한 스타들의 화장법이 주목받으면서 분홍 입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인터넷 블로그나 뷰티 커뮤니티에는 윤은혜가 바른 립스틱의 브랜드를 묻거나, 색상은 비슷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립스틱을 찾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요즘 주목받는 분홍 입술은 소위 '꽃분홍'이라 불리는 색상이다. 진달래처럼 어렴풋한 파스텔톤 분홍이 아니라, 채도가 높아 눈에 확 띄는 '핫핑크' 빛깔이다.

◆"새해에는 좋아질거야" 기대심리 반영 낙관적인 컬러 유행

"경기가 어려울수록 입술 색이 짙어진다"는 속설을 깨고 올 겨울 '잇 컬러'로 핑크가 떠오른 것은 불황을 극복하려는 소비자들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어느 해보다 어렵다는 2013년에는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낙관적인 색상'이 유행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색상이 뜰 것이라는 설명이다.

뷰티브랜드 슈에무라 PR매니저 김진디 차장은 "전통적으로 경기가 나쁠수록 강렬한 빨간색 립스틱이 잘 팔리는데 올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행복과 안정감을 상징하는 핑크 계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분홍 립스틱의 열풍으로 윤은혜가 실제로 사용한다고 알려진 나스의 '스키압'은 구하기 어려울 정도다. 슈에무라의 '강남 핑크' 역시 기존 물량이 완판 돼 다음주 중에 새로 입고 될 예정이다.

◆윤은혜 립스틱 품절 대란… 비슷한 '저렴이 버전' 매출 600% 껑충

네이처리퍼블릭의 '에코 크레용 립 루즈 1호 캔디 핑크'는 윤은혜 립스틱의 '저렴이 버전'으로 주목받으면서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 회사 홍보팀의 서진경 차장은 "출시된 지 꽤 오래된 제품인데 방송 이후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했다"며 "드라마가 시작된 뒤 매출이 방송 한달 전과 비교해 600%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길어진 불황 속에 '알뜰 뷰티족'이 늘어난 것도 분홍 립스틱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립스틱만큼 적은 비용을 들여 스타일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이크업 아이템이 없어서다.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들도 입술을 강조해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원포인트 메이크업'을 경기 침체 속 새 트렌드로 제시하고 있다. /채지승기자 jsu@metroseoul.co.kr

쌍화탕 종로 400원·양천 1000원… 같은 서울서도 일반 의약품값 들쭉날쭉

서울시내에서도 약국마다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들쭉날쭉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한 '2012년 서울시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동일 제품이 적게는 150원에서 많게는 2만5000원까지 가격 차이를 보였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복용하는 감기약인 쌍화탕은 중구에서 400원에 판매되는 반면 양천구 일부 약국에서는 1000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쌍화탕 평균 가격에서도 양천구는 667원으로 종로구 483원보다 184원 높았다.

마시는 감기약인 판피린 역시 광진구와 종로구 일부 약국에서 350원으로 가장 저렴했지만 강남·서대문구에서는 500원을 받기도 했다.

자양강장제로 많이 팔리는 자황액의 경우에도 은평구에서는 1200원이었지만 강남구에서는 평균 2090원에 팔렸다.

바르는 외상 연고인 후시딘의 경우 동작구에서는 평균 3200원에 판매됐지만 강남구에서는 3870원이었다.

유한양행 삐콤씨(100정)는 종로구와 마포구, 강동구 약국에서 1만8000원에 팔고 있었지만 강남구와 성북구, 영등포구에서는 최고 2만5000원에 판매되는 약국도 있었다.

이처럼 지역별, 약국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수요가 적은 품목의 경우 유통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공급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약을 모든 제약사에게 다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가 선정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에 대한 지역별 판매 현황을 시·군·구별로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건소나 소비자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채지승기자 jsu@

서울을 즐기는 10개의 앱

길안내·공연·교통 정보 등 터치만하면 척척

주말을 맞이 자녀들과 가까운 나들이에 나선 시민 이용재(42)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시내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Art in Seoul'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시내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전시나 공연정보를 지역별·일정과 날짜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얻었다.

서울시내에서 찾아가고자 하는 장소나 교통정보·지하철역 주변 지역 정보들을 손쉽게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0선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9일 시민 생활에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앱 톱 10'을 꼽아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앱중 '지하철 출구 정보'는 3차원(3D) 입체 영상으로 지하철역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 정확한 행선지를 알려주는 길잡이로 유용하다. 지하철역은 물론 역 주변 정보도 함께 제공해 연계 교통이나 시설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또 '서울 교통정보' 앱은 버스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다리는 시간과 이동경로, 소요시간과 거리 등을 자세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시민의 위치에서 가까운 공중화장실을 알려주는 'Seoul toilet' 앱도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걷고 싶은 서울길', '서울대공원 100배 즐기기', '서울시 분향물센터' 앱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별됐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eoulappcente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트로기자 eleven@

'100점 만점' 받은 판사

<김대웅 부장판사>

우수법관 10명 선정…"이혼하려면 딴 여자랑 나쁜짓 해" 막말법관도 많아

최고와 최악의 법관이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모든 법관 2738명을 대상으로 한 '2012년 법관 평가'를 9일 발표했다. 평가된 법관 수는 978명으로 전체 평균은 74.8점, 상위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97.54점이었다. 우수 법관 중 서울중앙지법 김대웅 부장판사는 100점 만점을 받아 최고의 모범 법관으로 꼽혔다.

서울변회는 하위 법관 10명도 선정했으나 명단은 비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42.53점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의 점수는 27.62점이었다. 2년 연속 하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된 현직 판사도 있었다.

우수 법관들은 소송 관계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고 어떠한 증거 신청이든 수렴하는 태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끄러운 변론기일 진행, 공정한 태도, 정중하고 바른 언행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하위 법관들은 막말과 불친절함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형사 항소심에서 A 판사가 '유죄가 되면 형량을 올려야겠다'며 당사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는 "가정법원 B 판사가 조정기일에 소송 당사자에게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최고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과 법원 출석자에게 '~잖아', '응, 그래' 등의 반말을 쓰는 판사들도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증인을 공범인양 몰아붙이는 태도,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 복잡한 쟁점에 포함된 사건임에도 전문가의 감정·사실조회 등을 거부한 판사들 대부분 최악 법관에 올랐다.

서울변회 김준한 대변인은 "한 명의 법관에 대해 최소 5명의 변호사가 평가했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쌀값도 고공행진 20kg짜리 5만원 육박 식탁 물가가 들썩거리는 가운데 주식인 쌀 가격도 새해 들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20kg 쌀이 5만5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8일 20kg 쌀(상품) 소매가격은 4만4470원으로 1년 전보다 5.8%, 1개월 전에 비해서도 1.1% 올랐다. /연합뉴스

20만원 저가형 아이폰 나온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이르면 올 연말 출시

오는 연말에는 단돈 20만원에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저가의 아이폰을 개발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에 출시할 수도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저가 아이폰은 표준형 아이폰과 외양은 같지만 본체를 아이폰5와 같은 알루미늄이 아닌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합성수지를 사용하고 상당수 내부 부속품도 표준형 아이폰과 같지만 구형 아이폰 모델의 부품을 재활용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장착한 저가형 스마트폰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애플이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23%를 기록했으나 2012년 3분기에는 14.6%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팀 쿡 최고경영자(CEO) 체제 이후 아이패드 미니를 선보이는 등 단말기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가 아이폰으로 신흥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박성훈기자 lundec@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45> 글·그림 박상철

'코코 샤넬' 떠나가다

1971년 1월 10일 프랑스 여성 패션계의 전설 가브리엘 샤넬이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2세에 어머니가 죽고 고아원에 맡겨진 샤넬은 18세에 재봉사 보조원으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가수가 꿈이었던 그녀는 틈틈이 노래를 부르던 카페에서 '코코 샤넬'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사람들은 코르셋과 레이스를 없앤 샤넬의 디자인에 더 매혹됐다. 무릎 근처까지 올라간 짧은 치마, 끈을 달아 어깨에 멜 수 있게 한 손가방, 검은색의 리틀 블랙 드레스, 거듭 번호가 매겨진 향수 '샤넬 넘버5' 등 그녀의 디자인은 하나하나가 모두 혁명이었다.

전기요금 평균 4% 인상… 물가자극 우려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 인상된다. 1년5개월만이다. 정부는 부담능력을 고려해 선가료 인상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쳐 서민들의 삶이 조금 더 곤궁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인을 인가했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두탁기자 lazyhand@

모든 카드사 다음달 무이자 할부 중단… 우수고객 등은 계속 혜택

삼성카드도 내달부터 무이자 할부 중단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형 할인점·백화점·면세점·항공사·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 카드사들이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내달부터 중단한다.

9일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은 "삼성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에 따른 제도 정착과 중소·저인 업종 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 가맹점 무이자 할부를 중단하겠다"면서 "다만 고객 불편을 고려해 안내 절차를 거쳐 2월 1일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모든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백화점·면세점·항공사·통신사·온라인 쇼핑몰·보험의 고객 유치용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됐다. 한동안 일부 고객의 불만이 예상된다.

한편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중단에 따른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주요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과 의 이자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무이자할부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거래실적이 많은 고객을 선정해 특별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두탁기자 lazyhand@

KTX타고 인천공항까지 간다

올 연말 서울역~공항 연결

KTX가 인천공항까지 연결된다. 올해 말부터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곧바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같은 기간에 분당선도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9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신경의선~인천공항철도 연결 사업을 포함해 모두 4개 사업, 32.7㎞의 철도를 개통하고 6개 사업 172.8㎞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의선~인천공항철도 연결 사업(2.9㎞)이 오는 12월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앞으로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나 리무진버스로 갈아탈 필요없이 KTX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곧장 갈 수 있다.

또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망포~수원 구간(5.2㎞)도 12월 개통한다. 이 구간의 개통으로 분당선 전 구간이 연결돼 서울 왕십리에서 수원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3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멘트 수송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천~삼용 구간의 단선철도를 복선전철로 확장하는 사업도 연말 완공돼 12월 개통한다. /[illegible]기자

서울 14만 안내표지판에 한·영·중·일어 병기 서울시는 한·영 2개 언어로 표기된 모든 안내표지판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한·영·중·일어 등 4개국 언어로 표기하고 디자인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9일 오후 옛 대통령 청사였던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은 한 관람객이 4개국 언어로 표기된 관광안내용 표지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콜센터 성희롱 '쇠고랑'

전화 걸어 "우리 같이 잘래" 등 상습 언어폭력 일삼는 고객 형사처분

"힘든 일 하는 것 같은데 재미있는 이야기해줄까" "우리 만나서 같이 잘래. 싫으면 다른 애들한테 물어볼게"

한 시중은행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직원 A(여)씨가 지난해 말 대출 상담을 요청하는 한 남성 고객의 문의전화 중 당한 성희롱이다. 3만 명이 넘는 콜센터 직원은 성희롱을 당해도 익명의 다수가 연락하는 콜센터의 특징상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에 성희롱이나 욕설 전화를 자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융사들이 콜센터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습 언어폭력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결과다.

서울시청 점심시간은 11시부터 9일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오전 11시부터 점심식사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연합회는 9일 '콜센터 성희롱 대응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들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내달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은행마다 콜센터 매뉴얼이 있지만 콜센터 직원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소속이라 성희롱 등 언어폭력을 가하는 고객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관리자에게 보고조차 안 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성희롱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금융사의 콜센터 직원은 은행 3500여 명, 카드사 8000여 명, 보험사 1만2000여 명, 증권사 2000여 명 등 총 3만500여 명에 달한다. /김[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오늘 오전 10시 자율적 블랙아웃

20분간 정전대비 대응훈련

10일 오전 10시 전국에서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이 열린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전 국민을 상대로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예비전력이 200만㎾ 미만인 '경계' 상황을 가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경보가 울리면 각 공공기관과 기업 및 가정은 간급 절전을 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야 한다.

자율 훈련이므로 주민 대피나 교통 통제는 없으며 병원 진료와 교통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3호선 양재역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실제 훈련이 벌어지면서 지하철 이용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훈련 상황은 방송 3사를 비롯한 주요 라디오 채널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unique@

지역 실업률 4% '전국 2위'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실업률이 4%를 기록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9일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월 부산지역 실업자 수는 6만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000명(10.1%), 작년 11월에 비해 4000명(6.5%) 늘었다.

실업률은 4%로 전국 평균 2.9%를 1.1%포인트나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4.6%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지난달 부산지역 취업자 수는 163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만4000명(2.8%), 작년 11월에 비해 6000명(0.4%)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일제조사

부산시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2013년 1월 1일 기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달 22일까지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시유지 52만1500여 필지, 국·공유지 18만1900여 필지 등 총 70만3000여 필지로 시 전체 74만1000여 필지의 95%에 해당된다.

이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접면 등 필지별로 23가지 토지 특성 등을 살핀다.

이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달 28일 결정·공시하는 1만834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 토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부산대 등록금 동결하기로

부산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부산가톨릭대에 이어 2번째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됐다. 부산대는 지난해 등록금을 전년도보다 5% 인하했었다.

부산대 측은 올해 장학금을 작년보다 14억원 더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등록금은 2.5%가량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6층
TEL (02)721-9800 FAX (02)730-1554

발행인 겸 편집인	남궁호
사회부장	김형학
부산지사장 겸 대표	김명철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0-2100
독자센터	(02)721-9802

2002년 5월 3일 창간 2002.5.30 등록번호 [illegible]

김해공항 이중 감시체계 만든다

승객 도주 재발 차단 위해 고성능 CCTV 4대 설치 – 미탑승 감독 강화 등도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달 중국 수속을 마친 베트남 승객이 공항 밖으로 도주한 사건을 계기로 김해공항의 승객이탈 재발 방지대책을 9일 내놨다.

이에 따라 사업비 2억여 원을 들여 국제선과 국내선 청사 옥상에 고성능 폐쇄회로(CC)TV 2대씩 총 4대를 설치, 계류장과 리모트 주기장 등 공항 전역을 감시할 계획이다.

CCTV는 기존 계류장 감시용 CCTV보다 고화질에 줌 기능도 가능해 특히 항공기 탑승 전 승객 이탈할 감시하게 된다.

또 지상 조업업체 직원과 버스 운전기사도 승객의 항공기 미탑승을 감시하고 이탈 시 신고하는 2중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내부에서 외곽 담장을 넘을 수 없도록 담장 부근의 지장물을 아예 없애고 윤형 철조망을 담장 내부에 추가로 설치, 접근이 어렵도록 했다.

또 2.5㎞ 구간에 설치돼 장력감지기능을 갖춘 첨단 외곽경비시스템도 면밀히 검토해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변경하고 의무 위반 시 벌금형 위주로 돼 있는 처벌 규정 외에 법령 위반자 외에 법인 등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한파에 꽁꽁 언 용추폭포 9일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용추계곡 안에 있는 높이 15m 용추폭포가 동추위에 폭포 물이 얼어 장관을 이루자 한 관광객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곳은 깊은 계곡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진리심학에 빠졌던 곳'이라고 해 '심진동(尋眞洞)'이라 불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온천천서 자전거 빌려 타세요

동래구, 11월말까지 무료 대여 – 50대 비치

동래구는 온천천 인공폭포 맞은편 교량 아래에 '온천천 자전거 대여소'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근로자 등 4명이 관리하고 있는 50㎡ 규모의 자전거 대여소에는 부산은행이 기증한 자전거 50대가 비치돼 있다.

시민들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2시간 동안 자전거를 빌려 온천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주말에도 시민 편의를 위해 쉼 없이 운영한다. 단 설 연휴 사흘간은 휴장한다.

한편 동래구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옛 송월타월에서 사직야구장까지 2.6㎞ 구간을 비롯, 지금까지 총 10.2㎞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또 사직야구장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12곳(120대)과 같은 해 말에 자전거 대여소 쉬력에 자전거 공기 주입기 1대를 설치, 이용 시민들의 편의도 적극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온천천에서 자전거를 손쉽게 빌려 이용하거나 사이클링을 하며 편리하게 타이어 공기를 넣을 수 있다.

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본격 추진

부산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산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05년 부산 U-시티 마스터플랜을 국내 최초로 수립해 U-시티 프런티어로서의 입지를 굳힌 데 이어 광역시자체 중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창조적 소통으로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 시티 부산'을 비전으로 경제, 생활, 문화, 환경 등 4대 분야에 최첨단의 ICT 기술(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지능화된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시민이 실생활에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U-서비스를 담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스마트 경제 도시 전략 부문의 스마트워크센터, U-재래시장 등 7개 서비스 ▲스마트 생활 도시 부문의 복지정보전달, 지능형주차 등 12개 서비스 ▲스마트문화도시 부문에 컨벤션, U-투어 가이드 등 5개 서비스 ▲스마트 녹색도시 부문의 U-파크, 카쉐어링 등 7개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확충

부산시는 올해 시와 구·군 예산 200억여 원을 투입해 고지대 등 주택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지대와 주택 밀집 지역에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34억원) ▲노외주차장 8곳(174억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6억8000만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25곳 등이 조성된다.

이 중 고지대 산복도로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망이 좋은 곳에 노후주택이나 폐가 등을 매입,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북구(90면), 사하구(2개소 90면), 사상구(2개소 250면), 동구(50면), 금정구(24면), 해운대구(279면) 등 8곳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비상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택의 담장 내문을 개조해 '내 집 주차장'을 만들 경우 주차장 설치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건설비를 지원하고, 부설주차장 약 40만 면을 야간 시간대에 일반 시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보석 냄비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6층 주방식기 매장에서 보석으로 장식한 냄비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대형마트

부산상의 올해 지역 유통업체 매출 전망조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의 영향으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매출이 감소한 반면 백화점과 편의점은 매출 신장이 예상됐다.

이는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 1900곳을 대상으로 2013년 매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

9일 부산상의에 따르면 업태별로는 백화점 예상 매출액이 3조143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편의점도 올해 예상 매출 7045억원으로 전년 대비 9.2%의 증가세를 전망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올해 1조3713억원의 예상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0.8% 매출 감소를, 슈퍼마켓 역시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올해 7459억원의 매출을 예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부산상의는 대형마트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영향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실제로 지난해 전년 대비 2.5%의 감소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화점의 경우 매출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장기 세일과 중저가 상품 판매 확대로 고객 1인당 구매단가는 올해보다 더욱 줄어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편의점은 신규 출점 확대와 간편식사 및 신선식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미기자 kum@metrobusan.co.kr

"센텀시티 아파트형 공장 구 착공명령 따라야한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노른자위 땅을 사놓고 계약 이행을 안 해 비판을 받은 아이에스동서㈜와 ㈜원스틸에 관할 구청의 착공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9일 아이에스동서 등이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이에스동서 등은 2007년 7월 부산시와 해운대 센텀시티 용지 1만3225㎡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해운대구와는 이 땅에 7만4375㎡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2010년 12월 준공하기로 했지만 이후 2012년 7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됐다. 그러나 업체 측이 이마저 어기자 해운대구는 "2011년 1월 31일까지 아파트형 공장 건축에 착수하라"며 2010년 7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이에스동서 등은 "해운대구가 계약 체결 후 센텀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추가로 분양해 공급 과잉으로 착공을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하동 부추 출하 한창 9일 오전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유채리 농장에는 4~60대의 여성 농민 1명이 보기만 해도 탐스런 부추를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다 /뉴시스

위안부 소재 영화 밀양서 촬영중

제작진, 수익금 전액 기부하기로 … 8월 개봉예정

국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소재로 제작되는 한 중 합작 독립영화 '소리굽쇠'가 경남 밀양에서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끌려간 밀양 출신 박옥선 할머니의 실화이기도 해 촬영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밀양시는 지난 5월부터 삼랑진읍 안도교 등에서 촬영 중인 소리굽쇠 제작진을 행정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서울, 중국 등지에서 촬영에 들어간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은 밀양으로 전체 70% 분량을 밀양시 일원에서 찍는다.

독립영화 소리굽쇠는 일제강점기 취직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으로 끌려간 귀임 할머니를 중심으로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 향옥의 대물림되는 고통을 다룬다.

제작진은 영화 수익금을 전액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부할 계획이다. 영화는 오는 8월 중순 개봉될 예정이다.

올 건보료 인상률과 혜택

Q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또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8%에서 5.89%로,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금액이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됩니다.

또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위암 치료제 '티에스원', 간암 항암제 '넥시바') 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암,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됩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분 틀니, 소아 선천성 질환(입술 갈림증), 장애인 자세 유지 보조기구 등에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에 대한 급여 확대로 간단 지석 제거, 집단 감염 등 위험성 높은 결핵의 검사비 등에 보험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고운맘카드 사용에 대한 편의성이 대폭 확대돼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

중기 설 자금 3000억 지원

부산은행은 설을 앞두고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000억원 한도의 설특별 경영안정 자금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울산시 4대 전략산업, 경남도 4대 전략산업, 녹색인증기업,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문희상 "전대 가급적 빨리"

민주 비대위원장 추대
"치열하게 혁신시킬 것"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 '멘탈 붕괴' 상황에서 건져낸 새 선봉장으로 5선 문희상(사진) 의원에 합의 추대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문 의원을 선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 원로 및 중진, 초·재선 의원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했으며 이날 열린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원인 분석 등 철저하고 냉정하게 대선을 평가하고 전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새 지도부가 당의 혁신과 수권정당으로서 새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토대를 튼튼하게 닦아 놓겠다"고 말했다.

전대 시점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정상이 아닌 상태"라며 "전대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미스코리아 한 출신인 방송인 이하늬씨의 외삼촌으로도 알려졌다. /장윤희기자

임기 한 달여 남은 MB "각계 탄원·요구 많다" 설 특사 고심

형님·멘토·친구도 포함?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이명박 대통령이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탄원하거나 사면을 요구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면 시기나 대상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 이 전 의원과 최 전 위원장, 천 회장 등 이 대통령 측근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백지 상태"라며 "누가 배제되고 안 되고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특사 시기·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특사 명단이 넘어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심해 단행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며 "어떤 기준으로 특사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 시점이 정권 인수인계 중인 점을 고려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사면일 2~3일 전까지 검토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사 단행 시점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설 연휴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하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불통 NO!

출피 국민제안센터 설치
다양한 목소리 반영키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가칭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9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인터넷상 민원창구 역할을 맡을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기에 올라온 국민의 목소리를 김연아 인수위 국정과제도 혹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이 지금 인수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국민과 소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명함 NO!

호가호위 오해 안사도록
업무보고도 낮은 자세로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들이 명함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간사회의 결과 인수위는 업무보고 진행 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부처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통상 명함을 사용할 경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기자

책 선물받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이심 회장에게서 책을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 당선인, 취임후 4대강 사업 재점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이명박 정부 차별화' 전략이 가속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대북 정책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4대강 문제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인수위에서 짧은 기간에 디테일하게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 출범 이후 과제로 넘길 수 있다"며 "그렇게 해야 새 정부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4대강 감사 결과 최종 측정 작업을 남겨둔 감사원과 환경 주무부처인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 5·24 조치도 단계적 완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이에 대해 "세부적 사항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화에) 나름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차기 정부 통일 정책의 밑그림을 짜고 이번 인수위 외통분과에 참여한 최대석 위원은 지난해 초 한 학술지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차기 정부를 위해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유리기자

KOSPI

1/3	1/4	1/7	1/8	1/9
2031.41	2011.94	2011.25	1997.94	1991.81 (−6.13)

KOSDAQ

1/3	1/4	1/7	1/8	1/9
499.07	504.04	508.72	509.01	511.94 (+0.93)

Nikkei (일본)
10578.57 (+70.51)
Hang Seng (홍콩)
23218.47 (+107.28)
Shanghai (중국)
2275.34 (−0.73)
Dow Jones (미국)
13328.85 (−55.44)

EXCHANGE RATE

달러	1060.50
엔(100)	1210.06
유로	1387.56
위안	170.39

프랜차이즈 폐업 급증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인 프랜차이즈 창업이 신규 등록은 많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취소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허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9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건수는 592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관리가 강화된 때문"이라며 "과거 관행이 시정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NHN의 자식들' 딴살림 차리나

한게임·네이버의 모바일 부문 분사설

네이버와 한게임을 거느리고 있는 NHN이 분사를 고민 중이다. 구체적인 부문을 언급한 분사설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임 부문인 한게임이 우선 거론됐다. 한게임보다 덩치가 큰 넥슨, 엔씨소프트도 게임 전문 기업인 만큼 한게임이 NHN에 묶일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한게임은 '테라', '위닝일레븐'과 같은 블록버스터를 서비스 중이지만 ▲신속한 의사 결정 ▲과감한 고객 대응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에 한게임은 게임 이름에 걸맞은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모바일 부문 분사는 현재 가장 '핫'한 IT 업계 이슈다. 포털 제국 네이버가 PC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과 별도로 과감하게 모바일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지 여부는 NHN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카카오, 애니팡의 선데이토즈 등은 조직이 슬림하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조직 슬림화 내세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오렌지크루(한게임의 모바일게임 신설조직)의 실제에서도 나타났듯이 조개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가나"고 말했다.

한편 5일 한게임은 '아시아 판타지'를 표방하는 온라인게임 '아스타'를 23일부터 비공개 테스트(CBT)한다고 밝혔다.

신작은 기존 서양 판타지 게임과 달리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다채로운 문화와 전설 등을 수채화 풍의 그래픽으로 표현했고 도깨비, 저승사자, 책녀 등 익숙한 캐릭터와 몬스터가 등장한다.

더불어 '아스타'는 세계적인 음악가 양방언씨가 게임 OST 작업을 맡아 완성도까지 기대를 얻고 있다. 이날 공개된 주요 곡들은 영화 OST를 능가하는 서정적이고 동양적인 선율로 관심을 모았다. /박상용기자 sav@metroseoul.co.kr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내 로그인 내역' 한눈에

네이버가 경찰 등에 회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이를 당사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 오픈한다.

NHN은 가입자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 내역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네이버의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네이버의 정보 보호 활동을 전하는 '보호활동', 이용자의 회원 정보와 다양한 통제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다. /박상용기자

LG·삼성 나란히 세계 최초 '곡면 올레드 TV' 공개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13'에서 LG전자가 선보인 '곡면 올레드TV'(왼쪽)와 삼성전자가 선보인 '커브 올레드-TV' /LG전자·삼성전자 제공

초고속인터넷 보급율

'한국 1위' 옛말

4년째 6위 제자리 걸음

한때 세계 1위였던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순위가 최근 수년간 최상위 그룹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이 정부 차원에서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고도화 계획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브로드밴드 포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유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2000~2005년 6년 연속 OECD 1위를 차지했으나 2006년 2위로 밀린 데 이어 2007년 4위까지 추락했고, 그 이후에도 2008년 6위, 2009년 6위, 2010년 5위, 2011년 6위 등으로 답보 상태다.

OECD 회원국들 중 스위스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2005년 23.8%에서 2011년 39.9%로 늘려 1위로 올라섰고, 같은 기간 네덜란드(25.2%→39.1%), 덴마크(24.9%→37.9%), 프랑스(15.1%→35.9%), 노르웨이(22.6%→35.7%) 등도 우리나라(28.7%→35.4%)를 추월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이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의 필수 기반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순위 하락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기자

기아차 사양 '업' 가격 '다운'

K9 2013년형 290만원 인하 … K5·뉴쏘렌토도 최대 63만원 혜택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주요 모델의 가격을 낮췄다. 수입차 공세가 거세지자 본격적인 방어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다양한 첨단 사양을 기본 적용하되 가격을 최대 291만원 내린 대형 세단 'K9 2013'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그제큐티브 트림(구 노블레스 트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 19인치 휠&타이어, 2열 도어 선커튼, 뒷유리 선커튼 등 고급 사양이 기본 장착됐다. 가격은 기존 5821만원에서 5530만원으로 291만원 인하됐다.

K9 2013의 기본 모델인 3.3 프레스티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18인치 휠&타이어, 어댑티브 HID 헤드램프, 앞좌석 냉난방 통풍 시트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동결됐다.

기아차는 이와 함께 중형 세단 'K5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을 2665만원에서 2636만원으로 29만원 내렸다. 뉴 쏘렌토R 2.0과 2.2 모델 리미티드 스페셜 트림을 각 60만원, 63만원 내렸다.

수입차가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가격 인하와 상품성 강화 모델로 안방 지키기에 시동을 건 셈이다.

부자의 전유물로 통했던 수입차가 2000만~3000만원대 준소형 모델로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만큼 현대기아차도 가격 조정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품질 업그레이드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내세워 가격을 꾸준히 올렸지만 경기가 악화하면서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국산차는 해외에서는 싸게, 국내에서는 비싸게 판다" "울선 장사를 한다"는 상당수 소비자의 불만을 외면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준기자 zen@metroseoul.co.kr

이 봄이 연비 1위

'푸조 208' 21.1km/ℓ 기록

연비 경쟁에서 디젤이 하이브리드를 이겼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푸조의 해치백 '208'이 2013년 신연비 1위에 올랐다. 208 1.4 e-HDi (5도어) 모델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신연비 평가에서 21.1km/ℓ(복합연비)를 기록해 기존 1위였던 토요타 하이브리드(21.0km/ℓ)를 근소하게 따돌렸다.

이론적으로는 디젤, 가솔린과 같은 화석 연료를 쓰는 엔진이 전기와 함께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연비를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졌다.

한국인 디자이너 신용욱씨가 디자인해 유명해진 푸조 208은 차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인 데다 푸조 기술력이 집약된 e-HDi 엔진 덕에 뛰어난 연비를 기록했다는 것이 수입원인 한불모터스의 설명이다. /박상준기자

백화점 식품관선 클래시폼 패션쇼 제일모직 브랜드 '에잇세컨즈'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내 식품관에서 클래시폼 컨셉의 패션쇼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 갈일 많은 노년, 이것 있으면 든든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노인 의료비는 13조원으로 10년 전 2조원에 비해 6배 이상 늘었다. 또 75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는 5조 4541억원으로 전체 노인 의료비의 40%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작 아픈 노인들은 수입조차 없어 소소한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병원비 걱정으로 작은 병 방치하다 큰 병으로 악화될 경우 의료비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의료비 지출이 큰 노년에 크고 작게 도움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 최근 이런 노년들을 위한 노년 전문 보험이 출시됐다. 차티스손해보험의 명품부모님보험이다.

명품부모님보험은 노년기 잦은 사고로 인한 병원비나 큰 질병을 모두 보장해주기에 노년의 걱정을 한번에 대비할 수 있다. 노년에 골절, 화상은 물론 중병인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과 7대 질병 모두 보장된다. 노년 질환인 백내장, 중이염 등의 시청각 질환과 인공관절 수술비까지 보장 가능하다. 이 상품은 50~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병원비 걱정이 큰 노년들에게 힘이 될 차티스명품부모님보험은 1577-8601로 전화하면 더 자세한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 온라인 홈페이지(www.chartis.co.kr)를 통해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윤지원기자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건설산업 · 신한, 리비아에 의료단 파견

내전상처 감싼 수술 봉사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위해 신뢰를 쌓는다!"

국내 한 중견 건설업체가 해외 건설 수주 주요 지역 중 하나인 중동 내전 국가에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건설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신한은 지난해 해외 건설 현장 리비아에 의료단을 파견했다. 내전 이후 심각한 의료난에 허덕이고 있는 리비아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의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리비아 의료단 봉사활동에는 알자위아 병원과 고려대학교, 리비아 HIB ODAK 등 정부기관이 함께했다. 신한은 효과적인 의료봉사를 위해 사전에 리비아 국립 TV 방송과 라디오, 전국 주요 신문,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 대대적인 환자 모집을 준비했다.

의료봉사단은 고려대 최상용 교수(구로병원 간담췌외과)를 단장으로 39명의 의료진을 구성했다.

이들은 리비아 알자위아 병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000건이 넘는 외래 진료와 30건이 넘는 수술을 진행했다. 특히 뇌수술과 척추수술 등 대규모 의료활동으로 현지 의료진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또 진료와 수술 외에도 현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과 세미나로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했다.

신한은 "리비아 해외 의료봉사 활동으로 내전 후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리비아 시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국내 의료진과 리비아 현지 의료진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재용기자

분양단신

'구리 태영 데시앙' 관심 후끈

'구리 태영 데시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견본 주택에 주말 최고 1만 여 명이 방문하는 등 고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167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구리 태영 데시앙'이 서울과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하고, 구리 뉴타운지구와 접해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서 향후 생활환경 개선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구리시는 2008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어 '구리 태영 데시앙'이 지역 주민들과 주변 지역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의 1899-4437

비타민나무 농장주 모집

강원비타민나무영농조합 2차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 일대에 춘천농장 조성을 위해 당사 농장주를 모집하고 있다. 춘천직영농장 분양은 1필지당 396㎡의 토지등기 이전과 비타민나무 240주가 식재되며, 분양가는 1구좌(1필지)에 1656만원이다.

매년 480만~720만원 정도의 위탁 영농 배당 수익금을 10년 또는 20년간 받을 수 있다.

문의:1577-0956

'광교 호반 베르디움' 상가

새로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 단지 내 상가는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다.

호반건설에서 시공한 '광교 호반 베르디움' 단지 내 상가가 회사 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인근 배후 수요는 5000가구로 구성되어 초·중학교 정문 앞 입지다.

상가 1개 점포 분양면적은 55.144㎡, 전용면적 34.353㎡이며 3.3㎡당 2300만~2400만원의 분양가로 융자 50%가 가능하다.

보증금 3500만원, 월 200만원에 임대가 돼 있어 1억원대 투자로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할 수 있다.

문의:031)252-5700

1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인하를 한다면 새 정부가 출범 전후인 2월이나 3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 불기 안정이라는 한국은행법의 준수보다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김중수 총재의 기조가 여전할 것을 전제한 전망이다. 전문가 9명 중 1명도 1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9일 발표한 '2013년 1월 채권시장지표(BMSI) 동향'에 따르면 채권 보유자 운용 종사자 126명 중 89.8%(전월 95.6%)는 한국은행이 1월 기준금리(2.75%)를 동결할 것으로 응답한 것이다. /김재범기자 larryhong@

베네수엘라 정부, 대통령취임식 연기 공식 발표

'포스트 차베스' 준비하나

암수술 이후 위독설이 나돌고 있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취임식이 전격 연기되면서 베네수엘라 정국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1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4기 취임식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날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은 "대통령의 회복 과정이 10일을 넘어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쿠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취임식 연기를 주장해 온 정부가 차베스 불참에 따른 취임식 연기를 공식화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연기가 차베스의 권력 복귀보다는 '차베스 없는 차베스 시대'를 만들기 위해 마두로를 중심으로 한 후계 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야권은 갑작스런 발표에 당혹해하며 대법원이 취임식 연기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차베스에 패했던 야권 통합 후보인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이곳에 군주제란 없다. 쿠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진을 이어붙여 만든 별 모양 장식품. 차베스 위독설이 퍼진 후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난을 수집 붙여 팔고 있다. /AP 연합뉴스

9일 중국 광저우시 남방주말 사옥앞에서 기자파업 시위 지지자가 좌파 단체와 충돌하자 공안이 말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파업 주간지 남방주말 "검열폐지" 당국 약속 받고 업무 복귀

"中 언론자유 새 이정표"

중국의 진보 주간지 남방주말(南方周末) 파업 사태가 전환점을 맞았다.

대만 연합보는 7일 언론 검열에 항의해 파업 중인 남방주말 편집기자들과 광둥성 당 위원회 측이 협상을 벌여 이번주(10일자) 신문을 정상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광둥성 선전부는 남방주말에 대해 관행적인 사전 검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방주말은 총편집인 황찬(黃燦)이 사퇴하기로 했다. 결국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선 셈이다.

파업에 참가한 남방주말 기자는 "이번 파업은 사전 검열 제도 폐지가 목적이었다"면서 "사태를 촉발한 퉈전 광둥성 선전부장의 퇴임이 목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남방주말 기자들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타협안은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가 직접 개입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춘화는 사전 검열 중단 및 편집인 사퇴에 대한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동시에 그는 파업에 참가한 기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제시했다. 후춘화는 시진핑(習近平)을 이을 차세대 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 대만 중국시보는 "합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방주말 기자들의 대승리로 볼 수 있다. 중국 내 언론 자유의 새 이정표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방주말 사태는 시진핑 시대 언론 정책의 시금석으로 여겨져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어왔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자 일각에서는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시진핑이 향후 언론 통제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남방주말은 광둥성 당 기관지인 남방일보를 발행하는 중국 미디어그룹 남방신문미디어그룹 산하의 주간지다. 중국 당국의 정책 등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진보 언론으로 유명하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신화통신 등의 매체를 제치고 단독 인터뷰에 성공,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중국 부패관리 95% 내연녀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적발된 부패관리의 95%가 첩이나 내연녀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중국 검찰일보가 전했다.

인민대학 위기관리연구센터 주임 탕쥔은 "부패로 적발돼 조사를 받은 관리의 95%가 정부(情婦)를 뒀고, 특히 지도자급 간부는 60% 이상 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탕쥔은 이어 "인터넷을 통해 내연녀와 놀아나는 부패관리를 고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제보를 받아 조사에 곧바로 착수하는 현상도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누리꾼의 부정부패 고발을 촉진하는 순환구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탕쥔은 "막대한 권한, 갈수록 커지는 부패 규모, 여자 문제 등으로 공무원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 당국은 부패척결을 통해 공무원 이미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미기자 seonmi@

아베 "센카쿠 접근 中군용기에 경고사격"

일본이 중국 군용기의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접근을 막기 위해 경고 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국 군용기(Y8)가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상공으로의 접근 비행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군용기 등의 센카쿠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경고 사격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 항공기와 해양감시선의 센카쿠 진입이 상시화자 8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을 관계로 불러 "확실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중국 항공기의 센카쿠 접근을 조기 탐지하고자 항공자위대의 조기경계기인 E2C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연일 동중국해에 띄우고 있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은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경고 사격 및 해상자위대의 함정 배치를 유보했다. /조선미기자

병든자여 내게로 오라 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시민들이 '블랙 나자렌'으로 불리는 커다란 십자가를 만지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블랙 나자렌 축제는 매년 1월 9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행사로 수 만명이 참가한다. 십자가를 만지면 질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다. /AP 연합뉴스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 metroseoul.co.kr
10개월간 '3500번' 이체한 남자
혹한에 90대 노인 쫓아낸 양로원

star bag

"7일 근신" 日 언론 일제보도

비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국방부로부터 7일간의 근신조치를 받자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닛칸스포츠·산케이스포츠 등 일간지들은 9일 '김태희와 데이트 레인에 근신 처분', '레인 공무 중 데이트로 일주일간 근신 처분'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또 징계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싱글 '투나잇' 한·일 동시발매

한류스타 이준기가 28일 새 싱글 '투나잇'을 한·일 양국에서 동시 발매한다.

소속사는 최근 "새 싱글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개최한 팬미팅에서 선보인 '투나잇'을 비롯해 총 4곡의 신곡이 수록된다"면서 "이전에 보여주지 않은 장르로 이준기의 남성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혼 '품절남' 됐다

배우 엄태웅이 9일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멤버들의 축하를 받으며 '품절남'이 됐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립발레단 출신 윤혜진씨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축가를 부른 성시경을 비롯해 '1박2일'에서 엄태웅과 호흡을 맞추는 멤버들이 두루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했다.

사기 혐의 징역 4년 재구형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재구형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강영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3일 열린다.

내가 이래봬도 '애교 도장' 찍었어 연지, 곤지

개그콘서트 '노예'로 인기몰이 송영길

"넌 내가 찍었어! 연지, 곤지!" 노예들의 사랑을 다룬 KBS2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의 코너 '노예'에서 노예로 분한 개그맨 송영길이 계룡이 역의 허안나에게 날리는 작업 멘트다. 시청자들은 그의 느끼한 멘트에 손발이 오그라들다가, 바로 이어지는 공분의 빗자루질과 도끼질에 웃음이 '빵' 터진다. 이심을 자극(?)하는 남자 송영길을 KBS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창원기자 takl427@metroseoul.co.kr

광분의 빗자루·도끼질에 웃음 빵
현실에서도 한때 노예처럼 고생
트라우마로 엘리베이터 오래 못타
몸·언기개그 무엇이든 할 겁니다

 # 코너 탄생 스토리와 연애 스타일

선발한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인 그는 "이전엔 머리카락을 묶으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은 풀든 묶든 다 알아본다"고 달라진 반응을 설명했다.

코너는 송영길의 머릿속에서 탄생했다. '노예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면 좋겠다'는 그의 생각에 허안나가 연애 이야기의 살을 붙여 지금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했다.

"노예 제도를 많이 공부했어요. 이때 조선시대 노예들도 몰래 사랑을 했겠지만 참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다행이죠. 웃기는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치며 방송에 나가기까지는 7주가 걸렸죠."

흥미로운 점은 팀 구성이다. 극중 송영길과 허안나는 노예로, 이희경과 박은영은 양반으로 나오는데 실제 '개콘' 내 서열도는 다르다.

"코너 안에서 기수로는 허안나 선배가 가장 높이요. 그 다음이 저와 희영이고요. 팀 분위기가 워낙 좋아 평소 연습하면서 사극 대사로 장난을 많이 치는데 뭐 선배는 계룡이처럼 받아주다가 엄격한 선배로도 돌변하죠."

방송 초반 송영길이 먹던 고기를 허안나 입에 넣어주는 장면이 방영돼 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배가 먹던 걸 내가 먹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반대의 경우에만 논란이 되니 섭섭하죠. 하하하."

극중 배역과 비교해 실제 연애 스타일을 묻자 "편지를 써주고 선물도 준다. 보기엔 이래 보여도 애교도 잘 줄 안다"고 답했다.

 # 그가 걸어 온 길 - 개그맨 포부

노예 처지는 아닐지라도 현실에서 숱한 고생을 했다. 어릴 적 형구를 보며 심형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오토바이 배달, 아파트 정비실 근무 등 여러 곳을 전전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취업을 나갔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방송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때의 상처가 지금도 이마에 진한 흉터로 남아있다. 당시의 트라우마로 오랜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다.

그러다 스물다섯 살이던 2009년 대학로 갈갈이 패밀리에 합류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KBS2 '개그스타'에서 1~5회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듬해 4월 KBS 25기 공채 개그맨이 돼 '개콘'의 '봉숭아학당' 코너로 얼짱김치 얼굴을 알렸다. 고생도 많이 했고 남들처럼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개그맨으로서는 행운이었다.

"다치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흥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파트 지하 3층에 있는 정비실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육체가 힘든 것보다 이렇게 청춘을 썩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올해 목표는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는 것이다. "지난해 동기인 김기리가 받았는데, 시기심보다는 부러움이 들었어요. 신인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아 열심히 해서 꼭 타고 싶어요."

어떤 개그를 펼치고 싶냐는 질문에는 "말이든 연기든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어 배우는 입장에서 더 해봤으면 한다"고 겸손한 답변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그맨들을 편견 없이 봐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했다. 사진/최용성(주)윤도스튜디오 디자인/정승희

1200만 수원팬과 KT 가족은
프로야구 1000만 관중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수원과 KT가 함께하는 수원KT프로야구단 창단을 염원합니다

수원KT프로야구단이 창단 되어야 하는 이유

KT는 연속적이고 든든한 투자로 제10구단의 현재와 미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1200만 경기도민과 3000만 KT고객의 성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비인기종목인 사격과 하키를 꾸준히 지원해 온 것처럼 늘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재난 후 얘기도 무게
●클로즈업 자주 등장

쓰나미 영화 색다르네

film review

■ 더 임파서블

17일 개봉될 '더 임파서블'은 무척 특이하게도 볼거리만큼이나 읽을거리도 많은 재난 드라마다. 재난의 실감 나는 스펙터클과 재난 후 이야기에 골고루 방점을 나눠 찍었다는 뜻이다.

헨리(이완 맥그리거)와 마리아(나오미 왓츠) 부부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세 아들을 데리고 태국에 간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기만 한 해변가 리조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들 가족은 갑자기 밀려든 쓰나미로 뿔뿔이 흩어진다.

구사일생으로 큰 아들 루카스(톰 홀랜드)와 살아남은 마리아는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파도에 휩쓸렸을 당시의 부상으로 다리를 절단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헨리는 함께 생존한 둘째와 셋째를 대피소로 보낸 뒤 마리아와 루카스를 찾기 위해 정처 없이 헤맨다.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는 산더미처럼 거대한 파도로 초토화되는 리조트와 휴양객들의 모습을 극 초반부에 잠시 보여준 뒤 이내 참사 이후로 초점을 옮긴다. 특히 마리아가 허벅지 살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크게 다친 줄도 모르고 한쪽 가슴을 드러낸 채 쩌어로 변해버린 해안을 루카스의 부축을 받아가며 걷는 장면은 시각적 충격이 아닌 심리적 압박으로 관객들을 옥죈다.

이 과정에서 연출자인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은 재난영화로는 보기 드물게 클로즈업을 자주 활용하는데, 웬만한 공포영화와 스릴러 이상으로 팽팽한 서스펜스를 제공한다. 데뷔작으로 호평을 받았던 '오퍼니지 – 비밀의 계단'이 호러 미스터리 장르였던 것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만 섣불리 희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매우 이채롭다. 헨리 부부와 아이들이 쓰나미로 인한 정신적 내상에서 당분간 헤어나지 못할 것이란 미래를 담담하게 예견한다.

앞서 개봉된 '해운대' '타워'와 비교해가며 보면 더욱 흥미로울 듯싶다. 재난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동서양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12세 이상 관람가

wind5686@naver.com

제시카 알바 섹시퀸 컴백

'씬 시티 2'서 스트립 댄서역

할리우드 미녀스타 제시카 알바가 올 가을 개봉될 범죄 누아르물 '씬 시티 2'에서 '섹시 지존'의 명성을 되찾는다.

남편 및 두 딸과 함께 지난해 한국을 찾아 엄마의 모습으로 익숙해진 알바는 2005년 개봉됐던 전편에 이어 다시 스트립 댄서 낸시 캘러한을 연기한다. 부패와 범죄로 가득한 최악의 도시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캐릭터다.

지난해 공개됐던 '루퍼'에서 2인 1역으로 호흡을 맞췄던 브루스 윌리스와 조셉 고든 레빗의 합류가 결정된 가운데, 그는 가죽 속옷 차림에 채찍을 휘둘렀던 전편만큼이나 관능적이고 뇌쇄적인 변신을 또 한번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작품은 원작 그래픽 노블의 작가인 프랭크 밀러가 전편의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과 공동 연출을 맡아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D로 선보인다.

/조성준기자

"영부인역 나에 대한 도전"

'야왕' 수애 "권상우와 키스신 적극적"

SBS 새 월화극 '야왕'의 수애가 영부인 연기에 도전하는 소감을 털어놨다.

극중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영부인이 되는 주다해 역을 맡은 그는 9일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그간 젊은 영부인을 다룬 작품이 없었기에 부담이 크지만 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부인 모습은 극 후반에 나올 것 같은데.. 행동과 의상 등에서 적절한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다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남자 하류 역을 맡은 권상우와의 키스신에 대해 "내가 적극적으로 키스했다. 다만 오케이 사인이 다음과 동시에 어색해했다"고 미소 지었다.

이 드라마는 '드라마의 제왕' 후속으로 14일 첫 방송된다.

/박지원기자 tak0427@

마이크 대신 총 든 아이돌

'7급 공무원' 황찬성 '아이리스2' 윤두준, 요원으로 수목극 격돌

마이크 대신 총을 든 아이돌 스타들이 수목드라마로 격돌한다.

MBC '7급 공무원'의 국가정보원 요원 공도하 역을 맡은 황찬성과 KBS2 '아이리스2'의 국가안전국(NSS) 요원 서현우 역을 맡은 윤두준은 9일 동시에 총을 든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황찬성은 주원·손진영과 함께 댄디한 턱시도 차림에 권총을 들고 007 요원 같은 모습을 뽐낸 반면, 윤두준은 검은 코트 차림에 라이플총을 들고 카리스마를 과시했다.

같은 시간대에 연기로 격돌하게 된 이들은 공교롭게도 JYP엔터테인먼트에서 함께 연습생활을 하며 우정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각각 2PM과 비스트로 데뷔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시트콤으로 첫 연기에 도전해 호평을 받았다는 비슷한 이력도 갖고 있다.

황찬성이 연기하는 공도하는 천재적인 두뇌와 냉철하고 과감한 행동력을 자랑하는 베일요원으로 온몸이 의문의 흉터를 간직하고 있고, 윤두준이 맡은 서현우는 사격 암호

황찬성

윤두준

해독 [illegible] 에 뛰어난 재능을 갖춘 동시에 따뜻한 성품을 지닌 엘리트 요원으로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7급 공무원' 관계자는 오랜 시간 집중해 연기하는 황찬성의 성실성을, '아이리스 2'의 관계자는 작품에 [illegible] 윤두준의 열의를 각각의 무기로 꼽았다.

총을 든 아이돌 스타들이 활약할 수목극 '7급 공무원'은 23일, '아이리스2'는 다음달 13일 첫 방송을 시작한다.

/김보람기자 kimb@metroseoul.co.kr

김장훈, 구글·애플 독도 오류 꾸짖는 광고

가수 김장훈이 구글과 애플의 독도 관련 오류를 지적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번 광고는 '애플의 오류?(Error in Apple?)'와 '구글의 오류?(Error in Google?)'라는 두 가지 문구로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에 실렸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것을 질의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2주 동안 20만 번이 노출된다.

김장훈은 "4월에 한국을 떠나 중국과 미국에서 장기 공연을 펼치지만 떠나 있어도 우리의 동해와 독도에 관련한 광고비 후원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경덕 교수와 함께 올해 국내에

[illegible]노랜드' 건설과 세계 최초로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대한민국 전용 광고판'을 만들 계획이다.

/유순호기자 suno@

'배우들' 존박 "첫 녹화 긴장 안했다"

MBC 토크클럽 '배우들'의 유일한 가수 출연자 존박이 겁 없는 첫 녹화 소감을 밝혔다.

9일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존박은 "주변에서 이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고 즐겁게 첫 녹화를 마쳤다"며 "박원미 선배님도 계시지만, 혼자 젊은 남자 출연자이다 보니 누나들이나 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셨다"고 촬영장 분위기를 전했다.

배우들이 풀어가는 영화 주제 토크쇼라는 점에서 가수로서 입지가 좁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 이야기를 듣고, 배우 어려분과 친분을 쌓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면서 "피아노 맨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신혜·심혜진·예지원 등 배우와 가수 출연자 10명이 함께 영화를 주제로 삶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 프로그램은 14일 첫 방송된다.

/김보름기자

소지섭 미니앨범에 윤하 피처링 참여

저음랩과 명품보컬의 만남

'명품 보컬' 윤하와 '소간지' 소지섭이 음반에서 입을 맞춘다.

윤하는 이달 말 출시될 소지섭의 두 번째 미니앨범 '6시 ~ 운동장'의 수록곡 '소풍'에 피처링을 맡았다.

소지섭 측은 "'소풍'은 사랑에 빠진 남자와 이별을 알리는 여자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곡이다. 읊조리는 듯한 소지섭의 저음 랩과 담담하고도 감성적인 윤하의 보컬이 어우러져 한 편의 로맨틱 영화 같은 느낌으로 듣는 이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하는 "예전에 소지섭씨 인터뷰를 보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꾸준하고 뜨거운 열정에 남다른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3월 출시한 첫 번째 미니앨범 '북쪽왕관자리'에 이어 10개월 만에 발표한 것으로, 소지섭은 4개 수록곡 중 총 3곡의 작사에 참여했다.

/유순호기자

이국적 숨비 스파…겨울도 몸녹이네

제주신라호텔 '윈터스파 존' 패밀리 자쿠지·핀란드 사우나 갖춰 · 위버힐링 등 패키지에 포함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에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제주신라호텔이 추운 겨울 따뜻하고 낭만적인 여행을 선사한다.

화려한 조명들로 밝혀진 야외 테라스 계단을 내려오면 야자수로 꾸며진 숨비 정원. 남국의 정취가 느껴지는 야외 스파와 온수풀 등 한겨울에도 40도를 웃도는 '윈터 스파 존'이 반긴다. 특히 야외 온수풀과 함께 자리한 숨비 스파. 패밀리 자쿠지에서는 꽁꽁 언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다. 통유리창으로 된 핀란드식 드라이 사우나에 앉아 이국적인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여기에 매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나눠주는 따뜻한 힐링 티 한 잔을 마시면 일상의 피로가 싹 풀린다. 찔릴 타는 겨울살이, 감귤진피, 소보니 등 제주의 귀한 야생차로 만들었다.

또한 다음달 10일까지(월요일 제외)는 매일 2회에 걸쳐 쿠바 & 브리질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해 따근한 온수풀 안에서 화려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좀 더 비밀스러운 공간을 찾는다면 '카바나'를 이용하는 게 좋다. 개별적 형태의 휴식공간으로 로맨틱한 눈맞기를 원하는 커플과 자녀를 둔 가족 고객들에게 인기다.

윈터 스파 존은 위버힐링, 어이러브 등 패키지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패키지 투숙객에게는 비치볼과 수영모를 제공한다.

한편, 제주신라호텔은 새해를 맞아 1월 한달 간 체크인 시 어린이 고객에게 더 신라 베어 인형을 선물하고, 숙박권, 더 신라 스파 뷔페 이용권이 걸린 스크래치 복권도 증정한다. 문의 1588-1142

/박지원기자

설원에 선물 '펑펑펑'

델피노·곤지암·한화리조트 3색 경품행사

리조트 업계가 새해 푸짐한 선물을 준비해 성수기 손님들을 맞는다.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는 다음달 17일까지 '스노우 원더랜드 퀴즈' 행사를 열고, 아쿠아월드 무료 입장권(1인 2매)를 증정한다. 홈페이지에서 델피노 리조트가 운영 중인 겨울 눈 축제 이름을 맞히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4일.

곤지암리조트는 스키장 분편제도 이벤트을 통해 LG전자 시네마 3D TV, 메타일케스 리프트권 등을 선물한다. 다음달 말까지 스마트폰으로 리조트 내 총 17곳에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당첨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설악워터피아는 한화호텔&리조트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워터피아 광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3일까지 ○○○○ 온천, ○○○○ 설악' 광고 카피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댓글로 남기면 총 30명에게 워터피아 입장권(2매)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16일.

/박지원기자 pjw@

태백산 눈꽃여행 떠나요

우리테마투어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태백산 눈축제와 눈꽃 트레킹을 즐기고 돌아오는 당일치기 여행 상품(5만9000원)을 선보인다. 또 다음달 3일까지 서울역에서 매일 출발, 태백과 단양 전통시장을 다녀오는 '환상선 눈꽃열차' 상품(5만4000원)도 함께 판매한다. 문의 (02)733-0682

제주항공 국내편도 1만원

제주항공이 국내선 누적 탑승객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22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국내선 티켓을 편도 1만원(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2만6100원)에 1000석 한정 판매한다. 한정 티켓은 홈페이지(www.jejuair.net)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6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서울도심 인기호텔 할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서울 시내 10개 인기 호텔 상품을 특가로 선보인다.

시청 인근의 코리아나호텔, 명동의 서종호텔, 라마다 남대문 등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30일까지 익스피디아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3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문의 www.expedia.co.kr

불황에 '설선물 2인자'들 뜬다

배+사과 혼합세트·갈비 대신 정육세트 늘리고 2000원대 양말세트 등 저가 비중도 대폭 확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 설날(2월 10일) 명절에는 '불황형' 선물세트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이 저렴한 품목을 함께 끼워 구색을 맞춘 혼합형 제품과 2000원대 양말제트 같은 저가형 선물 준비에 분주을 꽉고 있다.

롯데마트가 상품기획자(MD)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준비 동향을 파악한 결과, 일품형 제품을 중심으로 물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3만원대 혼합과일 선물세트인 '통큰 사과·배 선물세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려 6만 세트를 마련했다. 이성용 과일담당 MD는 "보통 명절에는 사과보다 배를 찾는 고객들이 많지만 지난해 낙과 피해를 입은 배보다 사과 가격이 요즘 더 저렴해 두 과일을 함께 넣어 가격을 내리고 실속도 챙긴 혼합세트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갈비세트보다 정육세트가 많아졌다. 냉동갈비 가격이 지난해보다 15~20% 뛰어서다.

이마트에선 2900원짜리 양말세트와 8000원대 식용유세트 등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 8%에서 올해 10~20%로 늘렸다. 지난해 풍작을 맞아 저렴해진 사과와 곶감 세트 물량도 늘려 판촉을 강화한다.

편의점들 또한 저가 선물 비중을 늘리고 있다. CU는 2만~3만원대 선물 구성을 예년보다 15% 이상 늘렸고, GS25에선 '5+1', '7+1' 등 덤을 얹어주는 상품이 전체의 72%에 달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설 명절에는 없던 10만 원 이하 한우정육 세트 3종을 새로 내놨다.

/전효순기자 hs.son@metroseoul.co.kr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2013년 설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100자 브리핑

던킨도너츠가 올해 새로 프로야구 1군 리그에 합류하는 NC 다이노스를 후원하기 위한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선수들은 던킨도너츠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경기하며, 창원 마산야구장 관중석에는 '던킨도너츠 존'이 설치된다.

오리온그룹은 지난해 중국 법인의 매출이 1조13억원을 기록, 식품업계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서 1조원의 벽을 넘었다고 9일 밝혔다. 초코파이, 자일리톨껌, 예감 등의 인기로 중국서 5년간 연평균 4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샘표의 식문화연구소 '지미원'이 4개월간의 내부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다. 발효 연구 공간을 마련해 발효음식 레시피와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스무디로 날씬한 몸·탄탄한 몸

새로운 '뷰티 앤 헬스' 프로그램 · 다양한 취향 반영

기능성 건강음료 브랜드 스무디킹코리아가 새해 건강한 습관에 도움을 주는 '뷰티 앤 헬스' 프로그램을 재롭게 선보였다.

스무디 한 잔과 인헨서(기능성 영양 파우더)를 30일 동안 21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저렴하게 하루 한 잔씩 꾸준히 맞춤형 스무디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클린 프로그램', 저녁식사 대신 저칼로리 스무디를 섭취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동 후 마셔 근육 생성을 돕는 '빌드업 프로그램' 등 목적에 맞는 건강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기존 '뷰티 앤 헬스' 프로그램이 라지(Large) 사이즈로만 구성됐던 것을 넘어 스몰(Small), 레귤러(Regular) 크기도 고를 수 있게 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30일 동안 21회 제공하는 기준으로 스몰 사이즈는 6만9000원, 레귤러 사이즈는 8만5000원, 라지 사이즈는 9만9000원으로 최대 39%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가적인 혜택도 따라붙었다. 스무디와 함께 랩 샌드위치, 베이글 등 푸드 메뉴를 구입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뷰티 앤 헬스' 이용 고객과 함께 스무디킹을 방문하면 동반 5명까지 무료로 사이즈 업(Size-up)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효순기자

매일유업, '가격만' 프리미엄 분유 손떼기로

"과도하게 비싸다는 비난을 받아온 '프리미엄 분유'를 없애겠다."

매일유업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일반 분유와 비교해 영양 성분에 큰 차이 없이 비싸기만 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프리미엄급 분유 제품을 없애면서 조제분유 제품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9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프리미엄 분유 제품 대신 한국인 모유 수준에 맞춰 성분과 함량을 조절한 유아식 '앱솔루트 엄마가 만든 명작'을 리뉴얼해 출시하기로 했다. 가격은 800g 1통에 2만5900원 선으로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 기존 제품보다 8%가량 올랐다.

또한 타사 제품보다 30% 저렴한 3만원대 유기농 분유 제품인 '앱솔루트 유기농 궁'(800g 3만5900원)을 새로 선보였다.

/전효순기자

상조대표 예다함 "K3 몰고 가세요"

가입자 10만명 달성 기념 3월 15일까지 사은이벤트

국내 대표 상조기업 예다함이 가입자 10만 명 달성을 기념해 오늘(10일)부터 3월 15일까지 3달간 고객 사은 행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는 고객을 추첨해 총 210명에게 2200만원 상당의 대규모 경품을 나눠준다. 최신 준중형 세단 기아자동차 K3(1명)를 비롯해 스마트 HD TV(2명), 김치냉장고(3명), 아웃도어 상품권(4명), 백화점 상품권(200명) 등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예다함 상품을 가입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월 납입금 2회를 면제해주고 업그레이드된 페이백 시스템을 제공한다.

페이백 시스템은 장례 진행 후 사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비용을 100% 환불해주는 예다함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기존 4개 품목(도우미, 버스, 횡대, 수의)에서 새롭게 5개 품목(관, 리무진, 제단장식, 꽃바구니, 화환)이 추가됐다.

온라인 상담을 신청만 해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한 이들을 추첨해 최신형 세탁기(1명), 최신 태블릿 PC(1명) 등을 선물한다. 온라인 상담 신청 후 가입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덤으로 준다.

예다함은 자산 20조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인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다. 상조회사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급 여력 비율도 2011년 기준으로 업계 1위로 출범 3년 만에 10만 가입 구좌를 달성했다.

/전효순기자

부영·전북 | KT·수원

지역안배 강조 '논리' vs 시장성 내세운 '감동'

프로야구 10구단 오늘 운명 가를 평가위원회 대상 PT… KT 약간 앞서

김완주 전북도지사(왼쪽)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프로야구 10구단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평가위원회 대상 프레젠테이션(PT)이 10일 진행된다.

평가위원회는 군산상고 출신의 야구스타 김봉연 극동대 교수와 한국프로야구 창립의 산파 이용일 전 KBO 총재대행, 이상국 전 KBO 사무총장 등 야구계의 친숙한 얼굴들로 구성됐다.

10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수원-KT와 전북-부영은 각각 PT 팀을 꾸려 1시간 이내에 준비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평가위원은 책자 형태로 제출된 10구단 유치 후보의 서류를 검토한 뒤 PT를 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부영은 박노준 우석대 교수 등이 직접 PT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5개 카테고리를 정해 전북과 부영이 제10구단을 맡아야 하는 의지와 당위성, 새 야구장 준비 계획, 부영에 대한 설명, 전북의 야구단 지원 방침, 부영 야구단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한다.

KT는 실제로 구단을 운영할 사람이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인사를 발표자로 내세운다. 지난 2년간 프로야구단 창단을 준비했던 것을 바탕으로 시장성을 강조하는 열정과 감동을 담은 PT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KT와 손잡은 수원은 10구단 유치가 확정되면 종합 레저 스포츠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야구장을 지을 계획이다. 국내 첫 돔구장을 건립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프로야구 10구단 의료서비스 지원과 스포츠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미국 애너하임 재활센터와 일본 월드윙 트레이닝센터와 같은 스포츠 재활센터를 만들어 선수 관리에 나선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양해영 사무총장은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관해 "지속적으로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10구단을 창단하게 될 것"이라며 "야구단 운영의 지속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능력, 야구 저변 확대에 대한 노력 등이 10구단 창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약 30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놓고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다. 11일 오전 9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신규 회원 가입안에 대해 심의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이석채 KT 회장.

대한항공 신영철 감독 경질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성적 부진에 따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영철(사진) 감독을 사실상 경질했다.

대한항공은 9일 신 감독에게 일선에서 물러나 총감독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은 것으로 2009~2010 시즌 중반 진준택 전 감독의 뒤를 이어 대한항공 지휘봉을 잡은 신 감독은 3년 만에 사령탑에서 물러난다. 대한항공은 감독대행 체제 대신 조만간 새 감독을 영입해 잔여 시즌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준기자

프로야구 수익 '1000억 시대'

입장수입만 633억… 중계권료·스폰서 등 350억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관중 700만 명을 돌파한 프로야구가 매출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는 9일 2012년 프로야구 관련 사업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약 35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고였던 지난해 340억 원에서 10억원 늘어난 액수로 프로야구는 2년 연속 매출 300억원을 돌파하고 양적 팽창을 이어갔다.

지난해 715만6157명을 동원한 프로야구는 입장 수입도 최초로 600억원을 넘어 633억5612만364원을 거둬들였다. 입장 수입은 구단끼리 나눠 가지기 때문에 KBOP의 수입과는 별개다.

KBOP의 매출액은 중계권료, 각종 스폰서십 계약, 온라인 게임 상품 판매 등 크게 세 항목으로 이뤄진다. 중계권료가 가장 많은 250억원을 차지했고, 스폰서십 계약금 90억원이 뒤를 이었다. /김민준기자

KIA 연봉삭감 '칼바람'

김상훈·김상현·차일목 등 주전들 된서리

지난해 부진했던 KIA 주전급 선수들이 연봉 삭감의 칼바람을 맞았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포수 김상훈·차일목, 외야수 김상현이 나란히 삭감된 연봉에 도장을 찍었다. KIA는 9일 김상훈과 1억7000만원, 김상현과 1억6000만원, 차일목과 1억원에 각각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0경기에 출전해 타율 0.172, 20타점에 머물렀던 김상훈은 연봉 3억2500만원에서 무려 1억5500만원이나 깎였다.

김상훈 | 김상현

왼쪽 손바닥을 다쳐 지난해 32경기에만 출전한 김상현도 4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차일목 역시 2000만원이 줄었다. KIA의 재계약 대상 선수 48명 중 미계약 선수는 서재응·최희섭·이용규 3명으로 줄었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홍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7 What day is today?

요일과 달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브본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넌 어제 어디에 있었니?
B I went to the hospital. 내 아내가 몇 주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
A Oh, no. How is she now?
B She's better now. Thank you.

정답 Where were you yesterday? / My wife was in the hospital for several weeks.

생생영어팁

▶ When is it due?
그건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거예요?

due(~하기로 되어 있는)는 보통 기한을 말할 때 씁니다. The report is due on Thursday.라고 하면 "그 보고서를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기한을 묻고 싶을 때는 "이건 언제까지가 기한입니까?" 즉 When is this due?라고 말할 수 있죠. be due는 앞으로 세상에 나올 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쓰입니다.

ex. A When is the baby due? 출산 예정일이 언제죠?
B The baby's due next month. 아기는 다음달에 태어나요.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명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appearance	명 겉모습, 외모, 출현, 나타남 appear 동 나오다, 출현하다	judge by appearances 겉을 보고 판단하다
attention	명 관심, 주의 attend 동 주의를 기울이다, 참석하다	pay attention to details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다
clothing	명 옷, 의복	wear protective clothing 보호복을 착용하다
compliance	명 (법, 규칙의) 준수 (with) comply 동 준수하다	in compliance with the policy 그 정책에 따라
failure	명 실패, 고장 fail 동 실패하다, ~하지 못하다	an engine failure 엔진 고장
forecast	명 예측, 예보, 전망 동 예측(예보)하다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일기 예보에 따르면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1. Read a text aloud

발음 연습하기

- [θ] & [ð]

무성음 [θ]발음은 혀를 윗니에 갑싸지 않을 정도로 살짝 대었다가 다시 안으로 넣으면서 바람을 불어 내는 소리이다. 혀로 윗니를 감싸면 바람이 새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혀를 윗니 아래에 아주 살짝 대는 것이 포인트이다.

[ð]발음은 [θ]발음과 발음하는 혀와 입모양은 같지만 성대를 울리는 유성음이다. [θ]발음의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성대를 울리는 소리를 내어보자.

[θ]			[ð]		
three	something	breath	them	otherwise	breathe
thrill	method	math	this	weather	smooth
thank	ethics	south	than	withstand	bathe